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April 14, 2016 Vol. 525

4월 9일 하루종일
〈아주사 나우〉
미국 위한 중보기도회
다민족 10만 명 참석
아주사 대부흥
다시 이곳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눈물로 ! 눈물로!
함께 기도해

아주사 나우에 참석한 중보기도자들이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 미국의 대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미국 부흥의 시작…〈아주사 나우〉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돼 전 미국을 강타했던 대부흥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그 부흥을 갈망하는 중보기도자 10만 명이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을 가득 채웠다. 9일 열린 아주사 나우(Azusa Now)의 참석자들은 인종과 민족, 심지어 언어의 장벽까지도 뛰어넘으며 한마음으로 LA와 캘리포니아, 미국과 세계의 부흥을 부르짖었다.

이 집회는 미국 중보기도 단체인 더 콜(The Call)이 주최했다. 루 잉글 목사가 이끄는 이 단체는 과거에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단위의 중보기도 집회를 여러 도시에서 연 바 있는데, 이번에는 LA의 가장 역사적인 상징물 중 하나인 콜리세움에서 10만 명이 기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콜리세움의 공식 수용 좌석 9만 3천 석에 필드까지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10만 명을 예상했는데, 이미 행사 시작 며칠 전에 사전 등록자가 10만 명을 수천 명이나 훌쩍 넘어서면서 주최 측에는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공식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오전 6시부터 입장이 시작됐지만, 그때 이미 대부분의 주차장이 만원을 이뤘고 행사장 출입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테러나 사고 등을 대비해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져, 긴 줄은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번 기도회는 기도, 설교, 찬양, 신유집회, 헌금, 새 신자 초청 및 결신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법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절실할 때가 종종 있다.

때로는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꼭 필요한 때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와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주신 이 약속의 말씀(시편32:8)을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미 꿰뚫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에브리데이교회 창립17주년 기념 임직예배

장로 7명, 안수집사 34명 명예권사 8명, 권사 31명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가 창립17주년을 맞아 10일(주일) 이 교회 본당에서 임직예배를 드리고 장로 7명, 안수집사 34명, 권사 31명, 명예권사 8명 등 총 80명의 임직자를 새롭게 세웠다.

이날 예배에는 예장국제총회 교단 관계자들 및 이 교회 성도들이 참석하여 새 일꾼으로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로 임직들에 대한 안수기도를 하고 있다.

최홍주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한창한 장로 기도, 믿음성가대의 찬양, 이서 목사(예장국제총회 총회장) 설교, 임직식, 신승훈 목사(예장국제총회 부총회장)와 김종옥 목사(예장국제총회 상임총무) 축사, 임직자 대표 김승열 장로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 후 최홍주 목사의 축도로 모두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설교를 전한 이서 목사는 '축복의 사람'(시편 34:10) 제목의 말씀 선포를 통해 "임직자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했다.

신승훈 목사는 축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목사도 축사를 통해 "오늘의 감격과 결단을 끝까지 잊지 말고 교회와 담임목사의 비전을 공유하는 임직자들이 되라"고 했다.

최홍주 담임목사는 "귀한 임직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지역사회에 더욱 더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임직자 가운데는 영어권인 James Darcey, Michael Lambert 등 2명의 안수집사가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이인규 기자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랜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951)383-5583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www.e-nca.org
Irvine
La Canada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여름학교
2016년 5월 31일~7월 22일
3rd St
Shatto Pl
Vermont Ave
6th St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7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Since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00-3588,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아주사 나우〉 기도회 오전 7시 30분 한인 목회자들 연합하여 기도회 인도해

한인 목회자들이 다 함께 무대에 올라 뜨겁게 기도를 인도했다.

[관련기사 1면으로부터 계속]주최 측은 다민족의 연합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 민족 그룹이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인, 유대계 크리스천, 라티노 등이 직접 기도회를 인도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루 잉글 목사가 직접 한인교계를 향해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 부탁하며 행사 첫 시간을 배정한 바 있다.

수십 명의 한인 목회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무대에 올라 기도를 인도했다. 먼저 신승훈 목사(주님의 영광교회 담임)가 한국에 복음을 전한 미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 기도회를 통해 거룩과 부흥, 연합을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담임), 정기정 목사(샘물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미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기도를 인도했다. 모든 내용은 영어로 동시 통역됐다.

한편 이 모든 집회는 유투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최대 2만 명이 동시 시청했고, 이 영상물도 언어마다 별도 채널을 통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김준형 기자

이황영 목사의 위임식, 김동권·정권 장로의 임직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가주기쁨의교회…이황영 목사 위임 및 장로 임직식"

사우스베이에 위치한 남가주기쁨의교회에 경사가 겹쳤다.

이황영 담임목사가 교회가 소속된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남가주노회로부터 위임목사로 위임 받았으며 김동권·정권 씨가 장로로 임직했다.

특히 서울대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목회하다 이 교회로 청빙받은 이황영 목사는 부임한 지 4년 만에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게 됐다.

예장통합 측에서 안수받은 이 목사는 신학적 성향에 약간 차이가 있는 KAPC로 이명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려 위임식도 늦어졌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이름을 빛과 소금의교회에서 남가주기쁨의교회로 바꾸면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10일 주일 오후 4시 열린 위임예배는 KAPC 남가주노회장이자 위임국장인 정철 목사의 인도와 설교, 노회 서기인 배종인 목사의 기도로 진행됐다.

임직예배는 갓 위임받은 이황영 목사의 인도로 대흥장로교회 권영국 목사가 축사하고 테메큘라중앙교회 김재현 목사가 권면한 후 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목사가 축도했다. 김준형 기자

이 행사를 준비 중인 김근수 목사, 김인구 목사, 박세헌 목사, 김영찬 목사, 주창국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장, 이명철 사무국장.

"목회자가 살려면 먼저 사모가 살아야"

LA목회자아버지학교…4월 22~23일 사모위로 행사 개최

두란노 LA목회자아버지학교가 제1회 사모 위로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LA목회자아버지학교 수료자 혹은 12기 등록 예정자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모는 등록비가 무료이며 목회자를 비롯한 그 외의 가족은 한 명당 20불이다. 사모 혼자 참석할 수도 있다.

아버지학교 관계자들은 "교회에서는 남편과 함께 동역자로 섬기고 봉사하지만 마음을 열어 나눌 곳이 없고 가정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가사를 돌보며 아내와 어머니로서 고생하는 사모들을 섬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세헌 목사는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런데 목회자가 살려면 사모가 살아야 한다"면서 "이 행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와서 편히 쉬고 위로받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명철 사무국장은 "그동안 사모들을 섬기는 행사는 간혹 있었지만, 목회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아내를 섬기는 행사는 드물었다"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행사는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의 권준 지도목사가 시무하는 시애틀형제교회의 후원으로 이뤄지며 주최 측은 다양한 선물도 준비해 놓았다.

- 등록기간: 4월 15일(금)까지 선착순 40명
- 일시: 4월 22(금)~23일(토)
- 장소: CJ Grand Hotel and Spa
- 주소: 67585 Hacienda Ave., Desert Hot Springs, CA 92240
- 참가비: 가족당 20불 (사모는 무료)
- 준비물: 성경/찬송, 슬리퍼 간편한 복장, 수영복
- 주관: LA목회자아버지학교
- 후원: 시애틀 형제교회
- 문의: 213-700-4689 213-382-5454

김준형 기자

노문환 목사가 주옥같은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

예심교회 창립1주년기념 찬양집회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에 위치한 예심교회(담임 정찬군 목사)는 10일(주일) 한국의 초대 찬양 사역자 노문환 목사를 초청하여 창립 1주년 기념 찬양집회를 가졌다.

이날 초청 강사로 나선 노문환 목사는 간증과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You raise me up" 등 주옥같은 찬양을 선보이며 참석한 70여 명의 회중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나눴다.

한편 노문환 목사는 한국의 늘노래선교단의 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1만 2천여 회의 집회를 인도한 바 있는 한국의 독보적인 찬양사역자이기도 하다.

찬양집회가 끝난 후에는 김용철 목사(캘리포니아신학교 대학원장)의 축도로 창립 1주년 기념 감사 찬양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교회 주소: 7651 9th St., Buena Park, CA 90621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 대학 및 일반대학 설립/인가 미 전역 종합서비스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제 4 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2016 효사랑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음을 배우고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응모대상 초등부(1학년-5학년), 중고등부(6학년-8학년), 고등부(9학년-12학년)
장애우 청소년(학년과 나이 제한 없는 청소년)

응모주제 효 글짓기 -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한글,영문 모두 가능함)
효 그림 -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영육간의 신앙)

응모분량 효 글짓기 (Letter size 3 pages, 글자크기 12pt-13pt)
효 그림 (크레파스, 수채물감, 드로잉, Oil Painting, 등…)

도화지규격 초등부 (1st-5th) - 14" X17" (S)
중고등부 (6th-12th) - 18" X 24" (L)

* 작품 제출시 작품 뒷면에 10줄 이내로 내용을 설명해야하며, Full Name, School, Grade, E-mail, Mailing Address, Phone No.를 꼭 명시해야 함

접수기간 2016년 4월 15일(금) ~ 5월 20일(월)

시상일시 2016년 6월 11일(토) 오전 10시
플러튼 장로교회 (515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축하공연 : CTS 어린이 합창단, Lenette 연주단 공연

작품제출 및 문의 효사랑선교회 Tel. 714.670.8004 Cell. 562.833.5520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E-Mail : hyosarangus@gmail.com

제출방법 우편, 방문, E-mail(글짓기에 한함) 작품은 개인별로 접수 합니다.

효사랑 글짓기, 그림 시상
대 상
최우수상
우 수 상
장 려 상
특 별 상
HEIVN상 (11학년 only)
상장 &
Notebook (최신형 모델)
Samsung Tablet
Android Tablet
상품
상품

* 참가 학생 전원에게 기념품 및 상장 수여

후원단체 Young KIM STATE ASSEMBLY, 종두란노 아버지학교 은총본부, 국민일보 www.kmib.co.kr, 가주교육신문
O.C. S.D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O.C.교협, O.C.평신도연합회, HEIVN 크리스챤 헤럴드, 크리스챤 비젼, 크리스챤 투데이, 기독일보, 미주 복음방송.

장 목사는 소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숫자가 아닌 영혼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목회할 것을 주문했다.

개강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왜 설교하세요?"

ILP소명 컨퍼런스…숫자 아닌 영혼 위한 목회해야

미주의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섬기는 ILP(I Love Pastor)의 제4회 소명 컨퍼런스가 '설교의 위기와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11일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에서 개최됐다. 초청 강사는 버지니아 한몸교회의 장세규 목사다.

강의가 시작되자, 장 목사의 첫 질문은 "여러분, 왜 설교하세요?"였다. 장 목사는 "저는 설교의 위기와 도전에 대한 강의에 앞서 먼저 설교자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설교학을 배웠다고 모두 다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신학교에서 배운 설교나 목회는 대형교회를 모델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다"고 했다.

장 목사는 "통계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인과 어린이를 모두 합쳐 150명 이하 교회가 전체의 85%이며 1,000명 이상 교회는 0.8% 밖에 되지 않는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나도 1만 명 목회를 하겠다'는 꿈을 갖는 것은 목회에의 열정과 동기를 주지만, 일단 목회를 시작했다면 현 상황을 빨리 직시하고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 0.8% 안에 속하지 않았다면 목회와 설교도 그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건강한 목회, 건강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로빈 던바 옥스포드대학교 교수가 제안한 던바의 수(Dunbar's Number)를 소개했다. 던바 교수가 오지의 부족들을 연구하던 중 '모든 부족의 구성원이 150명 안팎'이란 점을 발견하며 착안한 이 이론은 인간 두뇌 신피질의 크기에 따라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의 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 던바의 수는 150이다.

장 목사는 "성도의 수가 150명이 넘어가면 성도 한 명 한 명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며 목회할 수 없다"면서 "물론 1천 명 이상을 목회하는 0.8%는 비정상적으로 던바의 수가 높아서 목회를 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85%에 속하는 '정상적인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한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행복한 목회를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가장 좋은 설교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설교"라면서 "성도의 필요를 깨달아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도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위로하고 영적 축복을 나눠주는 목회자가 되자"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주겠다는 식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고도 했다. 끝으로 "주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을 한다면 목회는 결코 힘들지 않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사명자여 일어나라"

유나이트신학대학…개강예배드리고 새학기 시작해

유나이트신학대(총장 권다니엘 목사, 이하 UBU)가 9일 오후 4시 개강예배를 드리고 2016년 새학기를 시작했다.

이날 개강예배는 엘리야 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성경봉독에 정종윤 목사, 신학생 특송, 권 다니엘 총장 설교, 안한용 목사(명예총장) 헌금기도, 심진구 목사(부총장) 격려사, 권보라 목사(이사장)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된 후 권총장의 축도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에스겔 2:1~4절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한 권 다니엘 총장은 "이시대는 주님오실 때가 가까운 흑암의 시대이다"라며 "사명자는 십자가의 보혈의 죄를 씻고 맑은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능력을 받아야한다.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당부했다.

격려사를 전한 부총장 심진구 목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꾼삼아 주신 것이 사명자의길"이라며 "충성을 다해 복음의 증인 된 삶을 살자"고 말했다.

이 학교 이사장인 권보라 목사는 "신학생으로 부름받은 것은 큰 은혜이다.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구해 시대를 살릴 사명자가 되라"고 전했다.

한편 미주연합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권다니엘 목사)는 오는 5월 23일(월)~27일(금)까지 필렌 소망기도원에서 총회를 갖는다.

이 총회에서는 졸업식과 함께 목사 임직식, 그리고 성령컨퍼런스 등을 함께 가질 예정이다.

이인규 기자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성령을 받으라"

은혜한인교회가 매년 부활절을 즈음해 공연하는 이터널 라이프(Eternal Life)가 올해는 홀리 스피릿(The Holy Spirit)이란 소주제로 공연됐다. 8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3일간 진행된 공연에, 은혜한인교회 본당은 가족 단위의 관객으로 가득 찼으며 교회 주변의 타민족 주민들도 이 공연을 찾았다.

올해 뮤지컬은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사건 중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심 등을 무대에 올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죄 사함과 용서를 깨닫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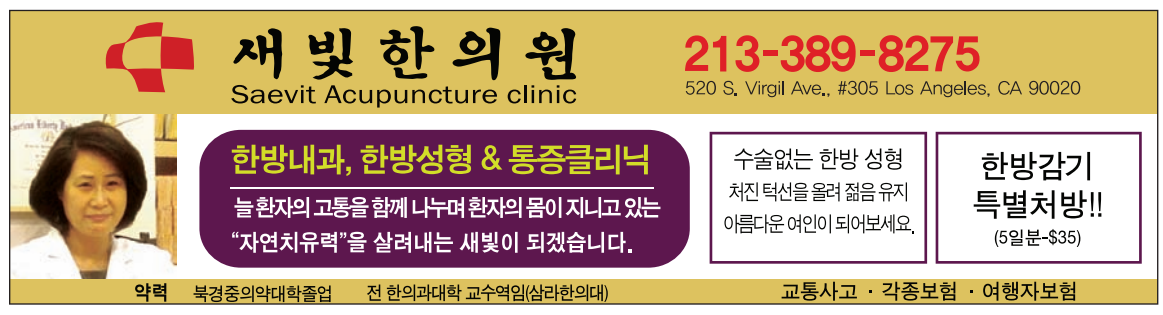
뮤지컬 말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의 메시지,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성령을 받아 선교하라는 메시지 등은 이 뮤지컬의 주목적이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 주었다.

이 작품은 28곡 전곡이 김현철 감독과 정봉화 씨의 자작곡으로 배우들의 열연도 감동적이었다.

이 공연을 준비한 창조문화선교단은 15개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성악인, CCM 가수, 공연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13년 전에 창립됐으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고문이며 극본과 감독은 김현철 전도사가 맡고 있다.

김준형 기자

은혜한인교회 창조문예선교단의 창작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중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시카고에서 열렸다.

"약속의 땅을 향해 다리를 놓는 사람들"

UMC한인총회 시카고에서 열려… 신임회장 김광태 목사 선출

연합감리교회(UMC) 한인총회가 4~7일까지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와 인근 호텔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주제 아래 열렸다. 신임 총회장에는 이 교회 담임 김광태 목사가 선출됐다.

이 총회에는 북일리노이연회의 샐리 다이스크 감독도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총회장 후보로 한상식 목사와 김광태 목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그런데 한상식 목사가 "김광태 목사가 더 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양보하면서 김광태 목사만 단독 출마하게 됐다. 김 목사는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회장에 선출됐으며 "교단 내 한인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표하며 상호친선과 화합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인교회와 관련된 교단의 모든 정책이나 의결 과정을 감시한다는 총회 목적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총회장 김광태 목사

한편 이번 총회에서 회원들은 한인 목회자 가운데 감독으로 출마하려는 이들에게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대뉴저지연회 소속의 곽지선 감리사, UMC 세계선교부 여성국 출신의 김혜선 목사 등 2명의 여성이 감독에 출사표를 던진다.

김경호 기자

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석)캘리포니아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캘리포니아노회(노회장 류낙영 목사) 제5회 정기노회가 6일 오전 피플스교회(담임 정석수 목사)에서 열렸다.

설교는 노회장 류낙영 목사가 전했다. 또한 양정모, 이권도, 조소영, 허영란 등 4명의 목사안수식도 함께 거행됐다.

한편 이 노회도 대신과의 교단 행정통합 진행 이유로 아직은 교단 명을 백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석)미주서부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측 제43차 미주서부노회가 11일 샬롬장애인선교회(담임 박모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노회에는 남가주, 북가주, 라스베가스, 덴버 등으로부터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신임노회장에는 박종진 목사(선한믿음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박 노회장은 "이민목회 현장의 노회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백석측은 지난해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과 교단 통합을 이루고 교단명을 예장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노회 차원에서는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에 미주서부노회도 여전히 그 명칭을 예장 백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오네시모의 독백

김 영 언 저

6. 야고보의 일갈

시리아 남쪽 이집트 북쪽 지중해 동쪽 끝에 사는 유별난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이네들의 유별난 자존심과 똥고집은 로마제국 전체에 꽤나 알려져 있다. 로마이전 그리스가 또 그 이전엔 메소포타미아가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부터 이들은 빛나는 역사를 자부하며 신앙을 지독히 고집하여 왔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저들의 조상은 이집트의 노예출신이며 이후로도 내내 바빌론국가들의 속국이었고, 이들 역사의 전성기라 할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역시 신의 영광을 크게 빛나게 하였다고 자평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을 신의 선택된 민족이며 그들 외의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 하며 내려다보곤 한다.

저들의 기준에 의해 이방인이 되버린 내게 이 유별남은 기독교인이 된 지금에도 종종 거슬린다.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살고간 예수의 때로 독기서린 가르침도 그러하고, 로마인이지만 유대 베냐민지파인 바울에게서도 가끔 이러한 끝모를 자부심을 느끼곤 하였다. 바울의 편지들은 이방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곤 하였다. 물론 기독교가 이스라엘밖의 유대인 이민자들 사이에 먼저 크게 번진 탓에 읽는 이가 대체로 유대계여서인걸 모르진 않지만. 할례도 그 중 하나이다. 태어난지 8일이 되면 성기 일부를 잘라내었던 유대의 율법을 적지않은 유대계 기독교인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에게 요구하였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그동안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많은 유대인에게는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었겠지만, 애초에 지킬 율법이라는 게 없었던 이방인에게는 그다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로마인인 내가 기독교에 마음을 두게 된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비유로 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보여주는 유대인스럽지 않게 융통성있는 처신은 내게 꽤나 신선하게 느껴진다. 할례를 포함한 유대의 율법을 이방인에게도 요구해야 하는가를 두고 사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때, 그가 내린 합리적인 중재로 인해 이방인 선교의 길을 크게 연 것이 아니던가.

(저자주- 사도행전 15장, 야고보는 예루살렘회의에서 바울과 점점 마음이 열리던 베드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고집센 유대계의 체면을 살려 중재하면서 지켜야 할 율법의 예로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만 언급하였다)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문제는 유대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30여년 기독교가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주로 로마제국에 퍼진 유대이민자들 사이에 크게 번지게 된 배경은, 이들이 같은 유대인이더라도 외국에 살면서 열린 시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보니 구원이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교인들과 심지어 교회지도자들 사이에도 종종 방종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아 이 어쩔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여. 각교회마다 이 자유를 남용하여 권위와 선행을 부지불식간에 부인하며, 거룩함을 요구하던 율법에서는 자유로우면서 쉽게 구원을 기대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사도 야고보가 이를 또 그냥 보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를 열게 한 장본인이라고도 할 그가 노구를 이끌고 교회들을 다니며 반대로 각성을 요구한 것이다. 그가 순교하기전 남기며 회람을 지시한 편지속에서도 그러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며 (저자주 - 야고보서 2장15절)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일부 신자들의 태도를 준엄하게 경고하는 야고보의 일갈. 노사도의 지적에 많은 공감이 있던 차에, 마가를 이어 예수의 생애를 글로 남기는 작업을 하는 동지들 사이에서도 행함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주목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토록 중용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지. 자유와 율법을 오가며 헤매고 있다. 〈계속〉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디도서 1:5~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첫째로 세우신 목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할 것이고 그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이끌며 양떼들로 하나님 기대에 합당한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 방침이 확실하고 영적 체질 신앙이 하늘나라로 통하는 교회가 됐을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에 부딪히는 심령들이 죄악의 응어리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거듭나서 의인의 반열에 거룩한 성도로 구원을 얻어야 하며,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서 목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합심 전력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방색을 드러내며 폐당을 짓고 서로 헐뜯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가장 바로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전심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바울의 선교를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이방인으로써 디도(원어로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고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체계적인 복음을 깨우쳐 주고 기도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영력으로 무장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함께 모시고 살면서 바울 사도께서 밤낮 소원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치는 삶의 목적이 뭔가 그것을 디도가 잘 깨달았습니다. 디도는 성경에서 디모데와 같이 사도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 성과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헌신하고 희생하며 전도하고 봉사하기를 힘쓰다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생활, 사명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 또 사명 의지와 또 희생 봉사하는 것을 그대로 전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거침없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버지 바울을 믿음으로 아주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성숙되고 또 수준급으로 자라게 됐기 때문에 그를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남겨 두었습니다.

본문에서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그곳에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여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무슨 부족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 주고 또 바울이 명한 대로 각 동네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목회를 위한 목자를 여기서 장로라고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느냐면 6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즉 신앙인으로써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 받을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한것은 일부다처제로 여자 여러 명 데리고 사는 일들이 아주 보편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탕하다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녀들 , 아내나, 부모님들의 믿음이 하나같이 확실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목회자를 일명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약점이 많고 책망받을 일이 많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칼날같이 찔러 쪼개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게 될 때에 자기 입장때문에 힘 있는 교훈을 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고 그 반대로 그 약점이 상대방들로 하여금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애타게 복음을 위하여 순교적 각오로 피나는 수고와 고생과 노력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 순간 순교하기까지 힘쓰고 애썼던 것은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함이 첫 째였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성과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이 말씀은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여러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의 지도자들은 아부하는 말을 해서 상대방의 주머니를 노리고 뺏어 챙기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 중에도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고집하느라고 예수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아주 헐뜯고 비방하면서 예수 같은 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선동하면서 많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엔 영지주의도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치 아니하고, 즉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구원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주머니 털어먹고 못된 짓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들이 망쳐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하늘 복을 얻어 하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항상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야합니다.그런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레데 사람들처럼 거짓말쟁이, 또 악한 짐승처럼, 또 배만 위하는 거짓말쟁이 되지 말자는것과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대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와 관심과 대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의 악함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영적 소망의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유대교의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속아서,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에 사도바울 혼자서는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다 보살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총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손발 노릇을 잘 하므로 그레데의 복음화를 위하여 놀라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하는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비방 듣게 하고 못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 가증한자가 되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져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교하는 방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지역 단위로 각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 목회 사역을 하게하고 그 어느 지역에 감독자를 꼭 파송해서 그 감독자로 하여금 그 지역 모든 선교사들을 총괄해서 바른 사역을 하도록 보살피고 이끌어 주는 역할로 선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장로·권사 임직감사예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엠마오장로교회 임직 감사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권사 임직자 일동

일시 : 2016년 4월 24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엠마오장로교회 (18435 Valley Blvd., La Puente, CA, 91744)

장로 이용구, 이수호
권사 유용희, 구자분, 안양란, 이정숙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엠마오장로교회

바누엘교회

바누엘교회 중고등부와 대학부

교역자를 모십니다

■ 사역부서
중고등부 1명, 대학부 1명 (각각 1분씩)

■ 자 격
정규 신학교 졸업생이거나 졸업하신 분
담당 부서에 경험이 있는 분
학생들을 좋아하시는 분
(가급적, 중고등부 사역자는 25-30세 정도의 미혼, 대학부는 30세 전후의 기혼자)

■ 연락처
바누엘교회 담임목사 이동배
T(818)823-5464, (213)353-4688

바누엘교회
190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다문화선교(5)

다문화 목회를 찾아 구약 속으로

송 재 호 목사
하늘샘교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 이방인으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야 함을 알려 주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장차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아브라함 사건은 다문화 목회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다문화 목회와 선교 이해에 필요한 두 가지의 중요함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타지에서 이주민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4절에서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헷족속에게 자신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라고 소개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한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르'와 '토샤브'이다. 이 두 단어는 타지에서 유입되어 기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방민족을 지칭하는 전문용어다. 즉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타지에서 지내게 된 첫 번째 이주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의 계약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 중 "큰 민족"이란 단어에 관하여 관심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큰 민족이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다문화와 다민족이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비전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대상은 바로 "큰 민족"인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이다.

성경에서의 아브라함 사건은 우리에게 온 인류가 이제 죄로부터 끊어졌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며 이의 대상은 모든 민족 즉 다문화, 다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인 천국을 떠나 세상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누구보다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의 고통을 쉽게 동감할 수 있는 것 같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한 임금이 등장한다. 그 임금은 의인이라는 사람들을 청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고 명령하게 된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의인의 대답은 의외로 37절에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대답으로 임금은 40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지극히 작은 자들과 같이 아픔과 외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도 있고 관심 없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아주 작은 실천이 복음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작은 겨자씨 속에 감추어져 있다. 겨자씨는 작지만 심으면 마침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모든 크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 큰 업적도 작은 시도에서 비롯된다. 중국 격언에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작은 것 속에 담긴 엄청난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사실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거듭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작은 것을 실천에 옮기는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라는 말이 거북하면 연습이란 말도 좋다. 또는 게임이란 말을 사용해도 괜찮다. 놀이란 말은 더욱 좋다.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즐거움에 있다. 무엇이든 즐거워야 오래 간다. 너무 진지하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비결도 즐거움에 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 1:2).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것을 지속하게 됩니다.

즐겁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힘이 들어서는 안 된다. 힘이 들지 않도록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야 한다. 작은 시도는 별로 힘이 들지 않는다. 작은 것을 시도하는 것은 어린이도 할 수 있다. 성경을 암송할 때도 짧은 한 단어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짧은 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짧은 한 단어를 암송한 후에 그 다음을 연결시켜 보라. 그냥 암송하지 말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암송하면 더욱 잘 외워진다.

그런 과정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필자는 그것을 영적 쾌락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깨달음의 순간에 "아하!"라는 경탄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

그 암송한 말씀이 신비롭게도 우리의 기도 속에 스며든다.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성품 속에 스며든다. 우리의 나눔과 글쓰기 속에 스며든다. 그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충만해진다.

아무리 큰 과업도 그것을 작게 나누어 실천하면 성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시도해 보겠다는 선택과 결단이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얼굴 표정을 조금만 바꾸어 보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의 얼굴 표정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우울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다면 우울한 얼굴 표정을 선택하고 그것을 연습한 것이다. 밝은 얼굴 표정, 미소 짓는 얼굴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것 또한 선택하고 연습한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도록 선택한 것이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고, 그 작은 변화가 어떤 느낌을 주는 지 스스로를 관찰해 보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물해 보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요함을 선물해 보라. 원망대신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세워 보라.

하루에 감사할 내용을 세 가지만 찾아내어 감사일기를 써 보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암송해 보라.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해 보라.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보라. 염려는 비생산적이다. 염려는 몸을 상하게 만든다. 하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근심 대신 찬송을 불러 보라. 두려운 생각이 들면 두려움을 묵상하는 대신에 성경을 암송해 보라.

앉아 있을 때 허리를 조금만 반듯이 세워 보라. 걸음을 걸을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걸어 보라.

작은 변화를 통해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을 감지할 것이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도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좋은 점을 발견한 후에는 그 좋은 점을 말해주자. 서로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작은 것이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작은 변화를 시도한 후에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자.

하지만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지혜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길 빈다.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FDA IND임상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tax 3병 $249+tax 6병 $474+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인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tax 3병 $179+tax 6병 $342+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황제 목회를 꿈꾸면 안된다"

2016 웨슬리 펠로우 원 데이 콘퍼런스… '처음 마음, 처음 생각' 주제로 개최

'2016 웨슬리 펠로우(Wesley Fellow) 원 데이 콘퍼런스(One Day Conference)'가 11일 안양감리교회(담임 임용택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 콘퍼런스는 감리교의 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계와 사회의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영성과 지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콘퍼런스는 '처음 마음, 처음 생각'을 주제로 은퇴 목회자들, 한 걸음 앞서간 목회자들,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 간의 사역들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예배에서는 임용택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처음과 마음(잠 4:2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그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두 가지가 바로 처음과 마음"이라며 "처음은 하나님의 것(미 3:13)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처음(창세기 1장)에도 마지막(계 22장)에도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웨슬리 펠로우는 18세기에 하나님께서 웨슬리(감리교 창시자)와 그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변혁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현재 위기의 시대 속에서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감리교 리더십을 세우고 이를 통해 감리교 부흥과 영적 혁명을 이끌어 갈 다음 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이다.

광림교회(김정석 목사), 만나교회(김병삼 목사), 안양교회(임용택 목사),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장찬영 목사), 자카르타늘푸른교회(김신섭 목사), 캐나다그레이스한인교회(박신일 목사) 등 국내외 감리교의 중추적 교회들이 웨슬리 펠로우에 협력하고 있다.

웨슬리 펠로우는 교회와 세상이 가진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탁월한 목회 리더십을 양성하고 이들을 네트워킹하여,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시대를 변혁하는 운동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도록 한다.

탁월한 목회자를 양성하고 네트워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할 새로운 시스템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사명감 있는 목회자를 선택하여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웨슬리 펠로우는 협력하는 교회들의 후원을 통해 인적·물적·영적 자원을 마련하고있다. 이대웅 기자

기독자유당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서울광장을 음란광장으로?"

기독자유당…서울광장 퀴어축제 승인하면 시장퇴진 운동할터

'기호 5번' 기독자유당이 서울광장에서의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하며, 만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그에 대한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기독자유당 이윤석 의원(비례대표 후보 1번)을 비롯한 김양원·홍호수(이상 비례대표 후보 5·6번) 목사, 방송인 서정희 씨(홍보대사) 등은 11일 오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시위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호수 목사는 "기독자유당과 한국교회는 하나되어 반드시 서울광장에서의 퀴어축제를 저지할 것"이라며 "작년보다 더 많은 이들이 반대에 앞장서 서울광장을 지켜낼 것"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일을 위해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며 "아울러 우리는 한국교회와 함께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의 국회 통과도 막아낼 것이다.

또한 과거 독립운동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시금 한반도 통일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순수성 상실한 한국교회 설교"

한국설교학회…제23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밝혀

한국설교학회(회장 김운용)가 "한국교회 강단 복음의 회복"을 주제로 제23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회 강단의 복음회복을 위한 성경적 설교: 칼 바르트(Karl Barth)의 삼중적 설교신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조성현 박사(부산장신대)는 한국교회 설교의 현 상학적인 문제가 중심성의 상실, 순수성의 상실, 그리고 진정성의 상실이라 지적했다.

첫째로, 조 박사는 중심성의 상실이란 설교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증거되는 많은 설교는 설교의 본질이 파괴된 복음에 덧칠한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성의 상실이란 설교란 성경본문에 강조점을 두어서 본문을 깊이 주석하고 주해함으로 성경 원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설교본문보다는 설교자와 목회의 상황에 너무 치우쳐서 상황이 본문을 지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셋째로 그는 "설교에서는 설교의 효과성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자에게 신행일치의 문제, 설교의 도용과 표절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설교의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조성현 박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Church Dogmatics) I/1의 제1장인 '하나님 말씀의 삼중구조'(The Word of God in its Three-fold Form)에 언급된'계시된 말씀'을 중심성으로,'쓰여진 말씀'을 순수성으로,'선포된 말씀'을 진정성이란 관점에서 성경적 설교의 기본원리를 제시했다.

한편 11일 은혜감리교회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설교를 통한 한국교회갱신"(김윤규 한신대 교수) "전도중심형교회, 현장에서의 설교"(부광교회 김상현 감독) "설교를 통한 리더십의 회복"(총신대 김창훈 박사) 등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이수민 기자

"예장 통합 연금재단, '정상화' 첫발"

신임 이사회 구성 마무리하는 등… 총회 결의 순조롭게 이행 중

전두호 목사
연금재단신임 이사장

지난해 9월 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제100회 총회 이후 전 이사들의 총회 결의 불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무실 이원화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디디며 총회 결의 시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연금재단은 제100회 총회 시 임기가 종료된 이사 4인에 대한 결의를 재확정, 전 이사 9인을 해임하고 신임 이사 7인을 공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임시이사 파송 요청 허락 판결을 근거로, 8일 만인 2월 11일 적법 절차에 따라 제242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총회 공천에 의해 파송된 총 7인을 이사로 선임, 총회연금재단 신임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사회는 제100회 총회에서 공천된 전두호 목사를 제12대 이사장에 선임하고 신임이사회 조직을 구성, 2월 16일 신임 이사들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다. 2월 29일에는 총회연금재단 회의실에서 총회 임원회 주최로 업무 정상화 예배를 드리며, 다소 지체되던 제100회 총회 결의 후속조치 실행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무엇보다 총회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금재단 정관 및 규정을 재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재단은 3월 28일 총회와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로 구성된 '기금위탁운용을 위한 1차 컨소시엄위원회'를 출범, 총회 결의 이행을 위한 기금위탁운용의 시작을 알렸다.

연금재단은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위탁운용사 선정 및 위탁운용 과정 등 중요 절차를 투명성과 안정성의 바탕 위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적인 위탁운용 시행은 우수한 수익성을 추구하고, 투자 의사결정 및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을 위임함으로써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입자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웅 기자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뉴욕영안교회 설립예배 순서자들과 예장 백석 뉴욕노회 관계자들 및 뉴욕교계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 담임 김경열 목사와 사모.

"말씀·기도운동으로 영성회복"

뉴욕영안교회 설립 주목…한국 지교회로 세워져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가 4일 오후 4시30분 설립예배를 드리고 뉴욕지역의 복음전파와 영성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뉴욕영안교회 설립에는 예장백석 뉴욕노회 관계자들과 뉴욕교계 목회자들 및 성도들이 대거 참석했다.

뉴욕영안교회는 한국 대형교회의 지교회로 세워졌다. 그래서인지 개교회 설립예배임에도 교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며 뉴욕영안교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줬다.

담임 김경열 목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선교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영성이 떨어져 사명을 잃고 소진한 건전지처럼 힘들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민교회 목회를 하며 이민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말씀운동, 성령운동에 대한 풋대를 분명히 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전했다.

양병희 목사도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지교회인 뉴욕영안교회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다.

양병희 목사는 "서울영안교회에서 파송한 김경열 목사는 두 번의 교회 개척을 모두 훌륭하게 감당했고, 영성,지성과 함께 겸손도 갖추신 분"이라면서 "뉴욕영안교회가 뉴욕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영안교회가 시작되게 된 배경도 주목된다. 김경열 목사는 뉴욕에서의 교회 개척을 고민하던 중 한국의 양병희 목사에게 지교회 설립을 건의했고 한국으로 가 서울영안교회에서 전했던 김경열 목사의 단 한번의 주일예배 설교에 양병희 목사와 서울영안교회 성도들은 뉴욕영안교회 설립을 결심하게 됐다.

4일 열린 설립예배는 뉴욕교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순서를 맡아 뉴욕영안교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예배는 한준희 목사(뉴욕노회 서기·뉴욕교협 서기)의 사회로 최창섭 목사(에벤에셀교회) 대표기도, 김정숙 목사(뉴욕즐거운교회) 성경봉독,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설교, 김영환 집사(테너) 헌금찬양, 안혜권 목사(열방교회) 헌금기도, 김전 목사(뉴욕대한교회)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교회 설립예배에서는 이종명 목사(뉴욕노회장·뉴욕교협회장) 설립공포에 이어 양병희 목사(서울영안교회) 영상 축사, 김영환 목사(뉴욕목사회장) 축사, 송병기 목사(목양교회) 축사, 김남수 목사(아가페교회) 격려사, 문석호 목사(효신장로교회) 격려사, 김종훈 목사(예일교회) 격려사, 황경일 목사(뉴욕계명교회) 권면, 김정국 목사(원로목사회장) 권면, 김경열 목사 인사 및 광고, 함성은 목사(뉴욕선민교회) 식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환 목사는 "오늘 설립예배를 드리며 뉴욕영안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쓰고 어떤 교회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송병기 목사는 "영안교회, 그 이름과 같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김대원 기자

김영봉 목사(워싱턴한인교회 담임) 초청 부흥사경회가 8일~10일까지 열렸다.

"외적 부흥 아닌 삶의 영적 부흥을"

애틀란타중앙교회…김영봉 목사 초청 부흥사경회 개최

애틀랜타중앙교회(담임 한병철 목사)가 8일~10일(주일)까지 김영봉 목사(워싱턴한인교회 담임) 초청 부흥 사경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서 주제는 '부흥'으로 김영봉 목사는 은혜의 부흥(마20:1-16), 기도의 부흥(빌4:6-9), 제자도의 부흥(마16:21-28) , 예배의 부흥(계4:1-11), 공동체의 부흥(엡4:11-16)을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8일 금요일 저녁 첫 집회에서 김 목사는 "교회의 외적인 부흥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적인 것으로는 부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형적인 부흥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진다면 외형적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목사는 "가장 좋은 신앙의 텍스트는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다. 지난 삶을 뒤돌아보며 많은 어려움과 지뢰밭과 같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다. 은혜는 감정적인 느낌이나 허물을 덮어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은혜는 '아무 공로도 없이 내가 받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정의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며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은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도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감옥에서도 메를 맞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모든 삶에 감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은혜다.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라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은혜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시편8편에 나온 고백처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돌이킨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복음에 응답한 것이 모두 은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전을 이전한 중앙교회에 축하를 보낸다. 새로운 장소에서 공동체와 삶은 물론 영적 부흥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앙교회에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수영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윌톤 옆) T.(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General & Cosmetic Dentistry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이슬람에 무릎꿇지 않을 것"

프랭클린 그래함… 오히려 모든 무릎이 예수께 절하게 될 것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지난달 부활주일 파키스탄의 한 도시 라호르에서 테러로 말미암아 무고한 어린이들과 여성을 포함해 70여 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전 세계가 이슬람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무릎이 예수께 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함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기독교인인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무덤(죽음)이 믿는 자들을 가두어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를 이끌고 있는 그래함은 사이트를 통해 "그들의 구체적 테러 목표는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이슬람에 항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면서 "하나님 말씀(빌2:10-11)에 따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절하게 되는 한 날이 올 것"이라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건강한 기독교인은 낙태·동성혼 반대"

美 유고브 설문조사 결과…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수용적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건강한 기독교인'인 동시에 '동성혼·낙태 지지자'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1일부터 3일간 18세 이상의 미국 성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고브(YouGov)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건강한 기독교인인 동시에 낙태 지지자는 전체 응답자의 33%, 동성결혼 지지자는 38%로 각각 나타났다.

유고브의 피터 무어 대표는 5일 "이번 연구 결과, 누가 건강한 기독교인이냐에 대한 견해는 주제에 따라 매우 달랐으며, (응답자의) 소속 교단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면서 건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적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선호도, 인종, 성, 종교(가톨릭이나 개신교) 기준 응답자 분류에서는, 가톨릭교인들이 개신교인들보다 더 수용적인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교인의 67%가 "건강한 기독교인이면서 비기독교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개신교인의 경우는 5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톨릭교인의 37%가 "건강한 기독교인이면서 동성관계도 맺을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개신교인의 경우 2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낙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신교인이 29%로, 가톨릭교인(20%) 보다 높았다.

"건강한 기독교인인 동시에 동성결혼 지지자일 수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가 '그렇다', 39%가 '아니다', 23%가 '확실치 않다'고 답했다. 또 동시에 낙태 합법화를 지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가 '그렇다', 41%가 '아니다', 26%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정당 선호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의 49%가 "건강한 기독교인인 동시에 낙태 합법화 지지자일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1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의 53%가 "건강한 기독교인인 동시에 동성결혼 지지자일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는 1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적 중도층과 소수층의 경우 동성결혼에 대해 36%가 그렇다고, 낙태 합법화에 대해 2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혜리 기자

"美기독교인들, 증오와 편견 버려야"

히스패닉 교계 지도자 … 전통적 가치 수호의 중요성 강조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미국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직면하고 있다."

히스패닉계 미국인 기독교 지도자 사무엘 로드리게스(Samuel Rodriguez) 목사가 "전통적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날 것"을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전 미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콘퍼런스(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회장인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는 이날 라디오 진행자인 그렌 벡(Glenn Beck)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독교인들은 미지근한 신앙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별히 미국 정치에 있어서 이 같이 중요한 때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2016년 미국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인들은 종교와 가치에 맞는 진리를 붙들고, 증오와 편견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치적 캠페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대다수가 현재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분노가 증오로 이어지게 놔둘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다. 그러나 이 분노가 증오가 됐는가? 증오는 죄"라고 했다.

신작 '빛이 돼라'(Be Light)을 펴낸 로드리게스 목사는 현재 워싱턴D.C.를 여행 중이며, 오는 16일 링컨기념관에서 열리는 전국연합통곡기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통곡기도회는 전국 목회자들이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미래와 복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다.

이 기도회를 이끄는 루이스 호건(Lewis Hogan)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 위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요엘서 2장이 미국에 대한 우리의 기도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와 함께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위나 정치적 불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기도로 지원하기 위해 모였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적 상태를 고쳐 주시길 간구한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하비로비사 스티브 브린 회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5월 2~4일 열리는 '윌버포스 주말'(Wilberforce Weekend) 집회에 참석, 현대 사회 속에서 미국의 가치에 대해 토론한다.

이혜리 기자

“나이지리아 기독교 마을의 고통”

무슬림 풀라니 족 공격으로…500명 이상 희생당해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풀라니 족 목자들이 북동부 마을을 10개 이상 공격해 5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죽였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국제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는 “아가투의 일부 마을들은 아직도 무슬림 목자들에게 포위돼 있다”며 “최근 공격은 베느웨(Benue) 주의 보안군이 목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다른 5개 마을에서 이들을 몰아낸 후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베느웨 주 이도마 부족의 지방의회의 엘리사 에코이 오베크파 대표가 최근 이 같은 공격에 대해 알렸다.

지난달 아가투를 방문했던 데이비드 마크 의원은 “경찰서뿐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건강센터, 예배 장소가 불에 탔다”고 말했다.

이 지역을 방문한 앙겔 디콩게-아탕가 나 유엔난민기구 대표는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해 온 20년 동안, 이 같은 수준의 재난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이번 공격에 대한 국가적·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제기독연대 머빈 토마스 총재는 “보안군이 파견된 후 몇 주째 아가투 지역사회가 포위되어 있어 매우 우려된다”면서 “풀라니 목자들과 관련된 이번 사건의 지리적 범위, 폭력의 규모, 소형 무기 확산은 부족 간의 다툼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지리아 전역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초지 방목과 같이 잠재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들은 극도의 주의와 객관성을 갖고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동성결혼식 주례 허용”

노르웨이 루터교…개인적 신념에 따른 거부권도 인정

노르웨이 루터교가 동성결혼식 주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노르웨이 루터교는 최근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체 115표 가운데 찬성 88표로 허용 결정을 내렸다. 단, 이를 원치 않는 사제들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회 내 종교적 운동인 ‘열린대중교회’(Open Public Church)를 이끌고 있는 가드 샌다커 닐센(Gard Sandaker-Nilsen) 목사는 “결국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진 커플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그는 교회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다.

이번 투표 결과는 노르웨이 사회 속에서 동성애 등 각종 쟁점들에 대해 자유주의적 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노르웨이는 지난 1993년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동성 간 시민결합을, 2009년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노르웨이 전체 인구의 약 74%가 루터교인으로 등록돼 있으나 이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의 주류 개신교회는 지난해 동성 커플 결혼식 주례를 허용했으며, 미국 장로교도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했다.

세계성공회는 1월 열렸던 관구장회의에서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를 유지하고, 이 같은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미국성공회에 대해 제재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혜진 기자

“방글라데시, 이슬람교 국교 유지”

법원, 이슬람교 국교 조항폐지 소송 각하…28년 끌어온 재판 허무한 결과

방글라데시가 이슬람교를 국교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방글라데시 일간지 다카트리뷴과 AFP통신 등이 지난달 말 보도했다.

28년 전인 1988년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한 헌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세속주의자들에 대해, 이날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각하했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파키스탄에서 독립한 후 세속 국가로서 국교를 지정하지 않다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1988년 헌법에 이슬람을 국교로 명시했다. 이에 같은 해 15명의 전직 대법원장, 교수, 언론인, 시민 등이 이 조항을 폐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2월 29일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에 판사 3명을 재판부로 구성하고, 3월 초 국교 지정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세속주의자들의 이의제기를 들으며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이 28년 된 이 도전을 거부하기까지는 2분도 걸리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15명 중 10명은 이미 죽었으며, 청문회 자리나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 이슬람교 국교 찬반 논란으로 시위가 계속됐다. 이슬람 정치 단체는 “방글라데시는 인구 90%가 무슬림인 나라인데, 법원이 소수인 비무슬림을 위해 국교를 폐지하려 한다”며 최소 12개 지역에서 국교 헌법 조항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세속주의 운동가 대표 수브라타 초드리는 “방글라데시의 소수종교인들에게 슬픈 날”이라고,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은 “1억 6천만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방글라데시는 1억 6천만 인구 중 이슬람교가 89.1%, 힌두교가 10%, 나머지 불교, 기독교가 0.9%(CIA 2013년 기준)를 차지한다.

이지희 기자

“IS, 기독교인 230명 납치 21명 처형”

시리아 알 카리야타인 마을 장악…기독교인들 무자비하게 박해

IS가 시리아의 알 카리야타인 마을에서 21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현지 신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알 카리야타인은 이달 초,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IS에게서 탈환한 지역이다. 시리아정교회 수장인 이그나티우스 아프렘 2세 대주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IS가 작년 8월 이 지역을 장악한 후,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다”고 했다.

IS는 알 카리야타인을 접수한 후, 마을에 살고 있는 230명의 기독교인들을 납치했다. 대주교는 “이들 가운데 최소한 3명의 여성을 포함한 21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했다”고 했다.

아프렘은 “일부는 마을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은 ‘딤미’(이슬람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무슬림이 아닌 국민’을 일컫는 말) 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처형을 당했다. 이들은 IS의 법에 강제로 복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다. 이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 중 최소 5명 이상이 실종됐으며,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IS 극단주의자들의 잔인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프렘 대주교는 ‘종교가 다른 공동체들’ 간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1세기 동안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왔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 타인에 의해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IS는 작년 8월 이 지역을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 약 1600년의 역사를 지닌 기독교 유적들을 파괴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72개월까지 0%이자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새 봄 맞 이 SALE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u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케네스 엄 집사(충현선교교회)

뜻이 있는 그 곳에 길이 있다

"믿음"에 "뜻"을 두고 행하면 최선의 결과 기대할 수 있어

美전지역 리멕스 부동산 에이전트 10만 명 중 17년 연속 상위 5위권

이웃사랑 실천처럼 고객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비결

케네사 엄 집사(충현선교교회)는 지난 33간 부동산 에이전트로 열심히 뛰면서 보람있게 살아왔다. 그 결과 현재 소속 회사인 리맥스 부동산 미전지역 에이전트들 중 실적 상위 5위권을 17년간 이어가고 있다. 엄 집사 뒤로 보이는 수많은 트로피와 상패 및 메달이 그의 뛰어난 실적을 증명해 주고 있다.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가 나온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철없어 보이는 양치기 꼬마 소년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이야기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골리앗은 아주 크고 강했다. 잘 훈련된 장군으로 튼튼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으며 창과 방패를 갖고 있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다윗은 가난한 어린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창도 방패도 아닌 겨우 물맷돌 몇 개 뿐이었다.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었을 것이다. 충고도 했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그토록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믿음이다.

다윗은 다름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뜻"을 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몸집이 큰 골리앗은 오히려 멀리 있어도 크게 보이는 과녁과도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작은 물맷돌은 오히려 과녁(급소)을 정확히 맞추기에는 더없이 좋은 무기가 되었다.

물맷돌이 급소에 정확히 맞기만 하면 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믿음"에 "뜻"을 두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 급소에 정확히 명중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성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재나 재주가 많은 사람들보다, 천재도 아니고 재주도 별로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뜻"을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네스 엄 집사는 그의 평생을 한결같이 이처럼 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에 뜻을 둔 대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을 얻어 누리고 있다.

케네사 엄 집사는 리맥스 부동산 미전지역 에이전트 실적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건국대학교 67학번으로 공군 장교 출신인 엄 집사는 27세에 미국으로 이민왔다.

맨 처음 이곳 LA로 오게 된 그는 안경 세일로 첫 이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곧 바로 유타 주로 거처를 옮기면서 197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에는 부동산 투자가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엄 집사는 유타 주에서 살던 약 10년간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한 예로, 1982년 한 해 동안 약 40여 건의 거래를 성사시킬 정도로 그는 승승장구했다.

그러던 중 그는 1988년 다시 이곳 LA로 생활터전을 옮겨 부동산 에이전트 일을 계속 해 나갔다. 그가 LA로 오게 된 이유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도전을 성취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엄 집사는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가며 성취해가는데 큰 보람을 느끼는 성격이기도 하다.

엄 집사는 1989년도에는 한인 중 처음으로 리맥스 맴버가 되었고 매매 실적 1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부동산 분야에서의 한인이민 1세의 지존심을 지켜줬다.

리맥스 부동산 회사의 미전역 총 에이전트가 약 10만 명임을 감안하면, 그의 실적 1위는 가히 짐작되는 성공이며, 어찌보면 소수 이민자들의 자긍심이기도 하다.

엄 집사가 지난 30년 이상을 부동산 에이전트 분야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본에 충실했다.

또한 맨 처음 이곳 LA에서 안경 세일 중 있었던 쓰라린 경험을 그는 지금껏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 당시 매우 큰 물량을 주문했던 한 고객이 그 다음날로 전량 취소한 일이 있었다. 그 일로 그는 그 고객과 약간의 감정적인 불편함도 있었다. 다시는 서로 얼굴 마주할 일이 없을 것으로 단정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개최된 어떤 큰 행사에서 그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 매우 난처했었다. 그 이후로 그는 'Never break the Bridge'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오늘날까지 교훈으로 삼고 고객을 대한다. 마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고객을 섬기니 고객들이 먼저 알아준다.

그래서 그런지 엄 집사와 한 번 연결된 고객들은 거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이웃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편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수도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맺어진 이웃을 주님 섬기듯 섬긴다면, 그것이 곧 선교적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성도의 삶일 것이다.

▲문의: 213-440-4949

이영인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봄학기 학생모집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126학점

신학 대학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일반 대학교:
1) 선교사 과정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1년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챤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챤 홈스쿨링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챤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앎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러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전자보청기
$300 상세한 정보 보내드립니다.
JongKim6702@gmail.com
T:(213)270-5268 김종명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금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101 Los Angeles, CA 90057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Oxford Ave. 3nd St.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지독한 비듬, 두피염증, 가려움증, 탈모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만성두통, 요통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서울메디칼 그룹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방송인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이정근 목사의 조각글

통큰 믿음을 주시려고

몇 천 명이 넘는 성경인물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누구일까. 단연 '예수'일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인물'만은 아니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일까? 모세일까, 바울일까, 아니면 다윗, 삼손, 마리아일까. 그 보다는 아브라함 아닐까. 예수쟁이들은 물론, 신자 아닌 이들도 아브라함은 잘 안다. 링컨 미국 대통령인 까닭도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거보다는 장래에 더 유명한 인물이 될 것 같다. 이 세상이 지구 국가 시대로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 때라서 더욱 그렇다. 아브라함은 세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태인들의 대표 조상이다. 로마 가톨릭교회, 희랍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한다. 게다가 이슬람에서도 위대한 인물로 모신다. 이슬람의 주도세력인 아랍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 후손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 77억 인구 가운데 30억 정도의 존경을 받는다. 따라서 그들 종교 사이의 죽고 죽이는 적개심을 치료하려면 단연 아브라함 공동조상론이 특효약 아닐까. "같은 아브라함 자손들끼리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야단들인가." 그런 자각이 어서 속히 일어나야 한다.

이 정 근 목사
성결교회

실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속좁으신 분으로 행동하셨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열매를 볼 수 없었다. 땅을 주신다는 언약도 사오십년이나 지나 겨우 손바닥만 한 가족묘지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이 주신다더니 그것도 새까맣게 잊으신 것 같았다. 오죽 답답했으면 아브라함이 머슴 엘리에셀, 조카 롯, 첩의 소생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겠나. 그러더니 겨우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 하나를 주셨다. 그런데 이삭이 씩씩한 청년이 되자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되리라는 것은 전혀 허풍공약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아브라함을 고향 갈대아 우르 곧 단단히 잡혀진 생활기반을 떠나게 하셨다. 복의 근원은커녕 환난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멀고 험한 여행길로 몰아넣으셨다. 도보 여행이었을까, 낙타여행이었을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아브라함을 통 큰 사람으로 육성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원대하면서도 세심한 시나리오였다. 사람이 여행을 많이 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통 큰 지도자가 되려면 인내심이 필수 요건이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뒤에야 그 속뜻이 밝혀졌다. 하나님도 외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통큰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공중의 티끌과 같이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공약이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에게 무한대한 하늘,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보여주신 언약이 실천되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그런데 그 첫 단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창 15:6).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이름도 '아브람' (고귀한 조상)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개명하셨다.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하'자가 더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대명/교육대명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의 근거가 되는 언약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그 족보의 마감이었다. 따라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통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특별기고

제 8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남가주 개최의 의미와 전망(下)

3. 한국 선교의 대 부흥의 원인과 전망

[지난호에서 계속]대한민국은 세계2위(27,205명) 파송국이지만, 기독교 인구 대비,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 선교사 비율과 사역과 복음의 효율성 면으로 볼 때, 선교학자 탐 스톨트(Thomas M. Stallter) 박사의 평가처럼, 실질적으로 세계 1위 라고 자부 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이 한국 선교의 비약적 발전의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1988년에 태동한 KWMC 개최 한인세계선교대회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매 4년마다 시카고 위튼 칼리지와 빌리그레함 센터에서 시작되어 약 32년의 역사와 함께 한국 선교의 폭발적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28년 동안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가 한인선교사들에게 최고의 재교육 현장이 될 수 있었고, 자연스런 힐링과 치료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동 서양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들(랄프 윈터, 루이스 부시, 조동진, 토마스 왕..., 등등)과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세미나 인도와 말씀 선포 속에서, 세계선교 동향의 최첨단 시대적 조류와 사조, 역동성을 체험함으로서, 그 동안 무뎌진 한인선교사들의 정신 사고체계를 새롭게 하는 교육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통신과 교통이 거의 단절 고립된 선교지 현장에서, 특히 창의적 접근 지역인 10/40창 지역에서 피 흘리는 영적 전투에 전념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존감의 상실과 영육간에 피폐함이 가득 짓눌린 삶이었다. 그런데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의 현장은 진정한 힐링과 치료를 겸한 넉넉한 쉼의 장소였다.

둘째, KWMC 한인세계선교사대회는 한인선교사들의 영성 회복과 선교적 야성의 재 충만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선교 동원가들의 탁월한 선교전략과 전 세계 오대양 육대 주에 흩어져 복음의 야성이 충만한 야전 사령관들의 생생한 승리의 현장보고와 열정적 기도운동은 한인선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선교사적 야성과 자존감 회복, 그리고 타오르는 소명의 열기로 충만한 은혜와 사랑, 헌신의 용광로가 되었다.

이것을 체험한 한인선교사들의 열과 성이 선교 현장과 후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선교의 시너지 효과와 확장을 가져왔음을 선교지 현장 26년의 시니어 선교사로서 담대히 고백 할 수 있다.

세째, KWMC 한인세계선교사대회는 북미주 이민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선교의 안목을 향상시킴으로 세계선교에 동참과 헌신케 하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988년부터 시작하여, 매 4년마다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자 수는 미국 동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하여, 약 4-5천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선교대회를 통하여 미주한인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대양 육대주로 "GO and SENT", 즉 보냄받은 선교사로,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을 다짐하는 원초적 교회 존립의 목적을 알게 된 것이다

김 경 일 목사
KWMC 총괄본부장

그 영향과 결과로,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폭발적 부흥과 확장 시기인 1988년대 이후부터 대형 이민 한인교회들 중심의 선교 운동이, 중형 한인교회들로 확산되었으며, 1997년에 발생한 고국의 경제 공황인 IMF 영향으로 주춤한 이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며, 2000년대 이후에는 소형 한인교회들로 까지 선교 활동이 보편화 되어 갔다.

그러나 미주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장기선교사 파송 보다는, 단기선교(Short-term mission trip) 사역에 더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그 동안 서구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많은 한인선교사들과 행정가들이 독립하여,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인 선교단체들이 유, 무형으로 우후죽순 같이 약 150개 이상 설립되었고, 현재 다 함께 세계선교 확장에 동참하고 있다(대표적 단체들로는 GP, SEED International, GMI, Come Mission, SUN Ministry, KIMNET...,).

특히 금년(2016년)은 1906년 미국 LA 아주사 성령부흥 운동이 타오른지, 만 110 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고, 또한 내년(2017년)은 조국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1907년 평양대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강성, 충만하게 나타날 110주년이 되어야만 할 축복의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2의 성령대부흥의 역사가 미주 한인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재 점화되어야 할 카이로스 하나님의 강권적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유배시절에 수산궁에서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 즉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은 불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 천대받는 상황을 전해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통곡과 탄식의 금식기도를 하며 조상과 동족의 죄, 나아가 조국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지 않은 자신의 죄를 통렬히 통회, 자복 했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은 느헤미야의 절절한 심정을 가슴에 가득 담고, 진정 울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감사하게도, 그 동안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2014년 11월 11일과 2015년 11월 29일에 있었던 다민족 연합기도회, 그리고 2015년 5월 7일 국가 기도의 날들을 통하여 미국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통곡과 회개의 운동이 있어 왔다.

그 현장에서 중보기도팀장으로 중보기도회를 진두 지휘한 필자는, 금년 6월 3~10일까지 남가주 아주사퍼스픽대학에서 개최되는 제15차 KWMF 한인세계선교사대회(6월 3~6일)와 제8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6월 6~10일)는 하나님께서 미국의 청교도 정신의 상실로 비롯된 윤리, 도덕적 위기 가운데서 대각성과 부흥의 기회로 남가주 한인교회들, 아니 북미주 한인교회들에게 주셨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전 세계 2만 7천 명의 한인선교사들 중에서 일 천명 이상의 10년 야전 사령관들이 집결함과 북미주 전역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약 7천 명의 정예 군사들인 하나님 사람들이 합류하는 장엄한 선교의 올림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남가주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은 금번 제 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적극 동참하여, 다시 한번 남가주 한인교회의 부흥과 도약, 그리고 북미주 전역에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를 통한 성경적 신앙의 부활과 도덕, 윤리성의 회복, 나아가 지상 최대의 명령인 오대양 육대주, 땅 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 시발점이 되기를 원한다.

더불어 그 복음이 날로 날로 강성, 창대함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약속처럼 메시아요 심판주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충만한 용광로 되기를 간절히 앙망, 대망한다. 〈끝〉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예수님의 경제학 강의
벤 위더링턴 3세 | 넥서스 | 292쪽

하나님은 돈을 왜 만드셨을까? 이 책 《예수님의 경제학 강의》는 경제 위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경적 재정 지침서다.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물이고, 가난은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낳은 심판의 결과인가? 저축, 부동산 투자, 보험, 복권은 과연 성경적일까? 돈에 대한 세상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등에 대에 답하고 있다.

천국소망 순교신앙
임준석 | 쿰란 | 168쪽

한국 기독교 최대 순교성지인 영광 염산교회 77인의 순교자 이야기를 모은 책. 한국교회 순교자의 맥을 이어 주며, 지역교회의 묻혀 있던 순교 역사를 제직회록, 당회록, 교회록 등의 문헌과 생존한 순교자 유가족 인터뷰와 목격자들의 증언, 신문과 사진 자료를 모아 세상에 알리는 역사 자료가 된다. 순교성지를 방문한 순례자들의 고백은 천국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유기성 | 규장 | 368쪽

이 책은 로마서강해이다. 유기성 목사가 2015년 주일 설교로 로마서를 강해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종일관 도전한다. 2천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려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복음을 참으로 믿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
한재술 | 그책의사람들 | 120쪽

그리스도인에게 말이란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진리를 전하는 말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태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고 바른 것이어야 한다. 지은이는 먼저 말 자체에 대해 우리가 갖는 여러 태도와 기준들을 살펴본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말할 때 어떤 기준과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종말론,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균형감 있게"

어두움과 두려움 때문에' 덮었던 요한계시록, 펴서 바르게 읽자

"오늘날 우리는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dark and dreadful eschatology)이 지배하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통 교회 내에서 종말론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하여 종말론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균형 잡힌 종말론(bright, healthy, happy, and balanced eschatology)의 아름다운 자취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정성욱 박사(큐리오스인터내셔널 대표)가 「정성욱 교수의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출간했다.

정성욱 박사는 첫 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교회의 종말론과 관련한 안타까운 상황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말론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교회가 행복한 기대감으로 신랑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돕는 것(계 19:6-9)으로, 한국교회 일각과 이단·사이비 집단에서 횡행하고 있는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과는 정반대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런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한 성도는 매일 그리고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예수님을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에서 의식하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친밀한 인격적 교통 가운데 은밀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 또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오늘 이곳에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건전한 역사의식으로 살아간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
정성욱
큐리오스 | 312쪽

'어둡고 두려운 책'으로 인식된 요한계시록을 균형 잡힌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익도 있다. 재림의 날짜를 예측하거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스럽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임을 이해한다.

저자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난의 시기를 교회가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단비들이 인용하는 '십사만 사천(계 7·14장)'에 대해선 "마지막 대환난기에 모든 성도 가운데 특별한 임무를 위해 구별되고 세워진 참 선지자들이고, 이들 중에는 일반 성도와 목회자들이 차별없이 포함된다.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총체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Church Property Solution 교회부동산 전문회사
Division of Max Capital Group, Inc.

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교회 부동산 매매
Church Property Sales

교회 부동산 리스
Church Property Lease

교회 미디어 디자인
Media Design & Consulting

For Sale
Fullerton: $1.25 M, 250석 본당, 친교실, 부엌, 교육부 교실들, 충분한 파킹
Yorba Linda: $4.895 M, 225석 본당, 3.25 AC Lot, 친교실, 부엌, 크리스천 학교
Downey: $1.25 M, 160석 본당, 친교실, 부엌, 교육부 교실들
기타 지역별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찾아 드립니다.

For Share
Anaheim Hills: 월 $3,500.00,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Garden Grove: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Diamond Bar: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Whittier: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기타 지역별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찾아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와 리스 I 인더스트리/오피스 건물/비지니스 팍을 교회로 변경 사용 I 교회 건물 렌트 I 건축/증축/보수 상담 I 교회 부동산 융자
각 시의 CUP 받는 것을 대행 I 예배실 디자인 I 교회 미디어 상담/디자인 I 이에 필요한 모든 벤더들과 협력

Mark Kim, CEO/Broker
BRE # 01338646, NMLS # 393349
PH (909)643-3994
Email: markk@churchpropertysolution.com

Stephanie Jung, COO
BRE # 01849106
PH (562)480-6912
Email: sjung@maxcapitalgroup.org

Max Capital Group, Inc
135 S State College Blvd Suite 200
Brea, CA 92821
PH (714)987-6120 I Fax (909)635-6116
www.churchpropertysolution.com
BRE # 01987951 NMLS # 1425276

"성경에 반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할 수 없어"

위대한 이단자들 … 바울, 아타나시우스, 위클리프, 루터, 칼빈, 주기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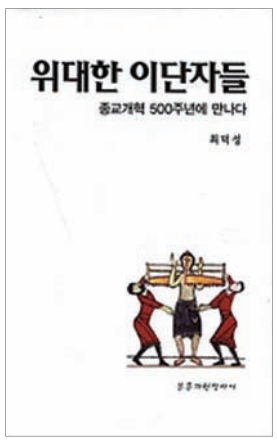
"교회는 종종 상을 받아야 할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벌을 주었다. 진리 파수꾼들을 공격하고 박해했다. 처형, 파면, 정직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주었다. 로마교회, 로마가톨릭교회, 프로테스탄트교회는 다 마찬가지로 성경과 성경적 진리성이 아니라 힘의 논리와 당파적 시각으로 이단 정죄와 처벌을 하기도 했다. 교회, 총회, 공의회는 실수했고, 범죄를 저질러 왔다. 교회의 이단 정죄는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 성경과 진리성에 충실한 결정만이 유효하다. 기독인에게는 성경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교회의 결정과 가르침에 순복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생겨났고, 2천 년간 그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독교 역사서나 신학서, 전기 등을 통해 배우는 그 위대한 인물들은, 당대에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채 멸시받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단'일 뿐이었다.

기독교사상사를 전공하고 역사신학과 교의학을 가르쳐 온 최덕성 박사(브니엘신학교 총장)가 이런 인물들을 한데 모아 「위대한 이단자들: 종교개혁 500주년에 만나다(본문과현장사이)」를 펴냈다.

아이러니하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 아래, 이 책은 바울부터 시작해 플라비우스 저스틴, 아타나시우스, 종교개혁기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마틴 루터와 존 칼빈, 20세기의 메이첸과 프린스턴 신학자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까지 다루고 있다. 저자는 "장로교회 설립자 존 녹스, 「천로역정」 저자 존 버니언, 독일 고백교회 목사 마르틴 뉘밀러,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선두에 선 이기선 목사, 중국의 왕명도 목사 등, 교회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이단자들'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어 안타깝다"고 한다.

저자는 자신이 소개한 이들의 특징에 대해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굳게 선 정통신앙인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살려 몸부림쳤으며, 복음 진리를 고백·파수하려 자기 시대의 신앙적 격랑을 온몸으로 헤쳐나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핍박과 고문을 달게 받다, 맹렬한 불꽃더미에서 재로 산화되기도 했다. 순교자의 반열에 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더 좋은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상급으로 받았다"고 평가한다.



위대한 이단자들
최덕성
본문과현장사이 | 620쪽

실제로 그랬다. 책에 소개된 '위대한 이단자들' 중 피터 왈도(Waldo of Lyons, 1140-1205)만 봐도,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에 따라 경건하게 살면서 설교와 전도 활동을 했을 뿐이었다.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고 걸식(乞食)하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며 복음 진리를 설교하고, 가난에 찌든 사람들에게 가난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가르치면서 사도적 청빈의 삶을 권장했다.

저자는 교회가 왈도와 와도파를 적대시하고 이단이라 단죄한 이유에 대해 "왈도파 신앙운동의 장점들이 기존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내, 체제 붕괴의 위기를 가져와 기득권 유지 구도를 위협했기 때문"이라며 "이단 정죄는 소수 그룹과 다수 집단 사이의 힘겨루기인 경우가 있다. 새로운 신앙운동이 기존 세력과 구도에 위기를 가져오면서 점차 확산되자, 교회 신학자들과 사제들은 왈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외침을 억누르려 자신들의 그릇됨을 정당화하는 방어기제를 정교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대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주기철 목사(1897-1944)는 웅천교회 당회장 이기선 목사의 영향을 받아 개혁신앙과 정통신학을 신념체계로 가진 장로교인답게, 성경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중요시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굳센 믿음과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신학에 근거했기에 결국 순교했다. 그러나 당시 배교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한국교회는, 주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의 목사직을 파면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악행과 불의, 불법은 나쁜 것들이지만 종종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기에, 변절과 배도-배교의 시대는 진리와 정의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신앙인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는다"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가 저지른 범죄와 악행은 '이단자' 주기철을 영광스러운 순교자 반열에 올리고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등장시켰다"고 분석한다.

결론으로 저자는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단 판별의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에 앞서 "한국교회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덤벼드는 이단들의 악의적 공격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단 방지 목적의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나, 고조된 이단 시비 과정에서 가라지를 뽑으려다 자칫 알곡까지 제거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교권적·감정적·자파 이기주의적 요인들 때문에 정죄당한 이단자가 없는지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시대적 과제'로 정통과 이단을 판별할 '한국교회 신학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새 시대를 주도할 위대한 이단자'가 등장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앞서 '신앙의 용사들'이 나타날 경우 영리한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내걸고 이런저런 결함을 구실 삼아 또다시 충분히 '이단자로 정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와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사실 확인을 한 뒤에, 신학적 깊이와 균형을 갖도록 하며 오류나 미숙한 점들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사랑으로 지도할 '공의회' 성격의 신학자 기구가 필요하다."

이단 시비와 관련된 한국교회의 최대 현안으로는, '사랑의 태도'와 '이단 판단의 주체다운 권위와 위상을 높이는 일', '이단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범교단 차원의 기구 설립' 등 세 가지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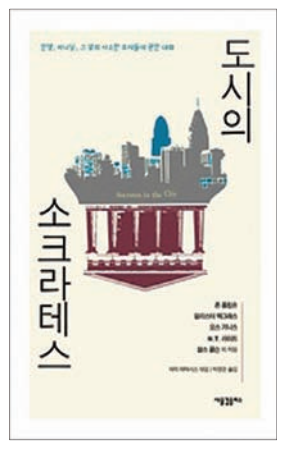
'위대한 이단자들'이 아닌 '진짜' 이단 집단이나 사이비 기독교 단체를 향해서는 "이 책의 메시지를 곡해·이용하여 자파의 정당성 변론에 악용하지 말라"며 "이단은 하나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회개하고 정통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최덕성 박사

"신앙인들의 치열한 삶"

그 고민들을 '도시에서' 나누다



도시의 소크라테스
존 폴킹혼 외
새물결플러스 | 568쪽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전, 1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한 것이 내게는 큰 자원이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은혜받음을 넘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 꽤나 힘든 삶을 살던 한 후배가 교회 대학부 수련회 중 기도회 시간에 나와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내려가기 싫다고 했었다. 은혜받은 그가 살아가기엔 견뎌야 할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그 후배와는 가끔씩 만나고 상담도 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잘 싸워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든든했다.

그런 것 같다. 신앙은 은혜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세상 속에서 부딪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가꾸어 나아가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제목은 적절한 듯싶다. '도시의 소크라테스'라는 제목의 정기 강연을 통해 기독교와 관련된 다양한 저명 인사들을 불러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내용을 묶은 이 책에는, 그저 유명인이 아닌 신앙을 갖고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적용하고 고민하고 살아간 이들의 신앙적 경로와 고민이 담겨 있다.

소크라테스가 도시에 있다는 것은, 철학이 단순한 사변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강연이 펼쳐졌던 뉴욕이라는 현대의 '도시 중 도시'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며 다양한 문제와 질문과 현실이 제기되는 현대의 '아덴(아테네)' 같은 곳에서 신앙인들의 고민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연의 시작마다 사회자였고 마지막 연사이기도 했던 에릭 메탁사스가 소크라테스의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격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나 사고는 책 속의 지식으로 머물 수 없다. 삶의 현장 속에서 제기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 완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책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주제를 일일이 평가할 수도 없고 일관성을 그려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나름의 복음적 시각을 견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뚫고 나아간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러기에 어떤 주제는 읽는 독자들의 관심 밖일 수도 있고 신학적 스펙트럼도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강연자들의 진실성과 치열함만큼은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속한 영역과 환경이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닐까.

책에 등장하는 강연자들 중에는 친숙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 알리스터 맥그라스, 오스 기니스, N. T. 라이트, 찰스 콜슨 외에도 다양한 강연자들이 등장한다. 다시 말하지만 일관된 주제를 다루지 않았기에,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관심 밖의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실린, 본회퍼에 대한 그의 강연은 도전적이고 인상적이다. 그가 쓴 본회퍼 전기(「디트리히 본회퍼: 목사, 순교자, 예언자, 스파이」 -편집자 주)를 기회 닿을 때 꼭 읽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한다.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99 꼭 사용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 대신 친환경, 무공해, 다용도
"에미나99"세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시 유연제 필요없고, 정전기 방지되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좋은 세탁물이 됨
-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 하면 피가 더 잘 통하고, 기름기 잘 지워짐
- 청소(화장실 변기, 욕조, 마루, 가구, 가전제품, 식당, 후드, 세차) 시에 화학물질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를 없애 공기를 정화시킴
- 애완동물 목욕, 어항 수질 유지와 뿌리면 집안의 모든 냄새를 없앰
- 농작물에 적은량을 뿌려주면 진딧물과 병충해가 없고 수확이 3배 이상이 되며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음(꽃에 뿌리면 빨리 시들지 않음)
- 양치질,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방지, 곰팡이 제거

항산화 세제 "에미나 99"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1. 친환경 무공해 세제로 건강을 지킵니다. (아토피, 피부염, 상처, 가려움증)
2. 지구를 정화시킵니다. (이산화 탄소, 다이옥신 제거, 방사선 감마선 20% 감소)
3. 세제 비용을 1/3정도 줄여 경제적입니다. (4인 가정 화학세제 년 약 $200.00 지출함)
4. 물을 절약합니다. (세탁 시 한번 만 헹구면 건강에 좋고, 사용한 물은 식물에 거름이 되고, 하수구 정화됨)

자매품 : 물돌, 밥돌,튀김돌, 생생팩, 신비의물통, 세수비누, 샴푸, 로션, 크림은 모두 항산화 용액을 넣어 만든 제품으로, 산화를 막아주는 세계 유일의 특유한 제품입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데오 겔러리아)
인터넷 "약손 나손" 검색 Tel:323)316-6815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For delivery subscription,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April 14, 2016 Vol. 48

Some 100,00 attended the recent 'Azusa Now' prayer gathering that took place at the L.A. Memorial Coliseum.

'We Pray for America to Be Holy!' 100,000 Gather to Seek Revival

BY RACHAEL LEE

Early in the morning at 6 AM on Saturday, the 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was already filling up with people. Lines crawled out of all entrances and parking lots were already getting full as thousands of people were rushing in — not for a football game this time around, but for a prayer gathering to seek revival.

The all-day prayer gathering, called 'Azusa Now,' was organized out of a hope to see another revival in the U.S. like that which took place in Azusa Street 110 years ago in 1906. From 7:30 AM to 10:30 PM, thousands attended the event which was organized by The Call, a revival ministry led by Lou Engle. Over 100,000 had registered previous to the event date, and some 900 churches and dozens of ministries partnered with The Call to prepare for the event, including Bethel Redding, which also led worship for a portion of the day.

One of the aspects organizers emphasized for this particular event was unity across racial lines, during a time when racial tensions have resurfaced across the country. As such, leaders of different ethnic groups were given different time frames to lead the people into prayer, including Korean, Messianic Jewish, and Hispanic leaders.

Korean American leaders led the very first hour of the event, from 7:30 to 8:30 AM, and translation into English was provided.

"The Koreans have the redemptive gift of prayer and fasting that we could learn from," said Engle as he started off the event, adding that another landmark revival was seen in Korea when revival broke out in Pyongyang in 1907.

Six Korean pastors led the congregation into prayer, including Young Gil Kim, the senior pastor of Thanksgiving Church; Paul In Sik Kim, the senior pastor of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Gyeong Jin Kim, the senior pasto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Daniel Jung, the senior pastor of Saemmool Church; Yu Chul Chin, the senior pastor of Los Angeles Full Gospel Church; and John M. Song, the president of World Mission University.

"We are grateful for Americans, who sent missionaries to Korea, through whom we were able to receive the gospel," said Young Gil Kim as he started off the Korean portion of the event. "And for their help to our country during the Korean War."

"We pray for America to be holy! We pray for America to be united! We pray for another revival in America," he prayed.

One of the prayer topics that was received with a particularly active response was that which was regarding North Korea. The crowd of thousands of people responded with amens and loud applause as Yu Chul Chin prayed, "May North Korea be open for Jesus Chris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st of the event consisted of praying for healing, particularly healing across racial lines as two portions were dedicated to that topic. The entire event was available on livestream through GOD TV, to which up to 20,000 tuned in at one point and offered translations in Korean, Chinese, Portuguese, and Spanish.

If Your Church Is Small, It's Normal: 'Part of the 85 Percent'

BY JUNHYEONG KIM

A preaching conference for pastors of non-self sufficient churches and church plants was hosted by I Love Pastor, a Korean organization that serves non-self sufficient churches and church plants. The fourth 'calling conference' which took place on April 11 at Ttokamsa Church was centered on the theme, 'The crisis and challenge of preaching,' and featured Rev. Steve Sekyu Chang, the senior pastor of One Body Church in Virginia, as the main speaker.

Chang started out with the question, "Pastors, why do you preach?" No one answered. "Before I talk about the crisis and challenge of preaching, I want to talk about the preacher," he said.

"Jesus only had 12 disciples left by the time he ascended into heaven after three years of ministry. If you have been wrestling with 20 to 30 congregants for over 30 years, your reward in heaven will really be great. Jesus sai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do the works I have been doing, and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John 14:12), and Jesus will acknowledge that you have been doing even greater things than he did," Chang said in encouragement.

"According to surveys, 85 percent of all churches world wide consist of 150 members — adults and children combined — and the churches with more than 1,000 members make up only 0.8 percent," Chang explained.

"Having the dream to minister to 10,000 people gives you motivation and passion when you first start out ministry, but once you have your own church, you have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reality quickly and adjust to that. And if we are not part of that 0.8 percent, we must change our style of pastoring and preaching to fit our circumstances."

He went on to discuss more about preaching itself, and said, "The best kinds of sermons are those that blesses the congregation."

"We need to know who our members are and what their needs are, and preach about those things that are relevant to them," he emphasized.

"You all have been called not only to be preachers, but to be pastors. Pastors are preachers, teachers, speakers, and a lot of other things, but there are things only a pastor can do. A pastor must take care of the sheep with the heart of a parent."

"We aren't chefs of a five-star hotel; we are just mothers ... Even if our sermons aren't like the quality food at five-star hotels, all we need to do is put our heart and effort into it just as a mother does when she prepares food for her child," Chang said.

Meanwhile, I Love Pastor (ILP) was spearheaded and established 14 years ago by lay members of the Korean church in both South Korea and the U.S. For much of its history, the organization offered seminars and tours for pastors of non-self suffiient churches and church plants in South Korea, but starting four years ago, similar programs have been offered for pastor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S. Among the programs offered for pastors in the U.S., the 'calling conference' focuses on rejuvenating and renewing pastors.

Hillside LA: A Place of Worship for the Local Community

BY RACHAEL LEE

(Photo courtesy of Hillside LA) About half of the congregation of Hillside LA are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Though about half of the congregation at Hillside LA — the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of a Korean immigrant church called Los Angeles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 are non-Korean members, Koh wasn't set on making Hillside multi-ethnic from the get-go when he had first begun serving as the ministry's lead pastor almost eight years ago. It was an incident that led to a series of conversations that led to the vision, according to Koh.

About a year and a half since he started serving at Hillside, Koh was taking one of his routine walks around the church to pray and get some exercise, when all of a sudden, he saw a Latino American teenager biking through the church parking lot and screaming out profanity against the church.

It was this incident that led Koh to start questioning, "Why would any kid say that about our church?" He began to engage with people in the community and asked them how they felt about the church. And he found that much of the community's response was negative.

"Basically the community was looking at us from the outside and just thinking, 'Why is this church even here in our community?'" Koh recalled.

These encounters led Koh to form a new vision for Hillside: "to be a relevant church that reaches from the local context all the way to the global context."

"The location is very specific to the way the Lord wants to use the church to pour out into the surrounding community and to share the gospel," said Koh.

To see that vision realized, the first obstacle awaiting Koh was getting the leaders of the church on board. At first, leaders of both Hillside and the Korean ministry (KM) of LACPC were hesitant, considering the fact that El Sereno's community is "so eclectic," as Koh put it. Many of El Sereno's community used to be in gangs, for example. Would the church be prepared to welcome such individuals? Koh said the challenges were the first things to come to his mind as well.

"But I couldn't deny what the Lord was placing on my heart," Koh said, and added that he found that all of the concerns they had were "matters of preference or logistics."

"I asked them, 'Unless there is a very clear example from the Word why we shouldn't go through with this — the gospel is uncomfortable enough, why don't we go all out and allow this community to worship in a localized place?'" Koh explained.

But it seemed the challenges that Koh and the leaders faced in pursuit of this vision only began from there. Once the leaders came on board, the next challenge was to help the existing Korean members and the visiting members of the community to connect with one another. Initially, people would only spend time with those that they already felt comfortable with, and members of the KM would often look at the visiting non-Korean members "strangely," Koh described. And at first, the non-Korean members who visited Hillside would only come once and never come again.

To help the members of Hillside get adjusted, Koh began to personally focus his efforts on building relationships with members from the community who visited the Sunday services by sharing his vision with each person and spending as much time with them as possible. And once they began to come to Hillside on a regular basis, Koh also personally discipled each member.

"It took a lot of energy and effort for them to feel comfortable," said Koh. "But they saw the vision. They saw that it was more than just for themselves. And they saw the reason for them to be here."

Then, Hillside's leaders tried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the congregation to intermingle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 KM. Korean American and non-Korean members were mixed together into small groups. Non-Korean members were encouraged to join mission teams and outreach projects.

Hillside would join the LACPC picnics and other events to interact with the KM members. And in 2011, Hillside served a Thanksgiving meal for the KM for the first time, which has since become a church tradition. Among those who served the food were the non-Korean members, gloved up and serving turkey.

"We wanted to create these spaces where they can naturally come together, build relationships, and get to know one another," Koh explained, "particularly those spaces that are outside of normal church activity."

Doing things together outside of the normal Sunday service "brings a disruption to people's habits," Koh said, and forces people to think creatively and to become more open to interact with people they normally would not.

Though being intentional in becoming a church that engages with and invites members of the community has presented its challenges, Koh said there are unique benefits to becoming such a ministry, such as the fact that congregants stop trying to compete socially with one another.

"In a mono-ethnic, mono-cultural, mono-socioeconomic congregation, they start comparing the little things like the bags or the clothes people wear," Koh said. "But once your church becomes so diverse, those things don't matter anymore because everyone is so different anyway."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also becomes more enriched, as congregants of different cultures express their emotions and faith in different ways.

"All of these different cultures have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these are all things we can draw and learn from one another," he explained.

"In the end, it is about giving our people a local church to worship at. As long as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feel that they are invited and welcome, that's a win for me."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Judge Rules Reinstating Cross in L.A. County Seal Is Unconstitutional

A federal judge ruled on April 6 that including a cross in the Los Angeles County seal is unconstitutional.

The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was sued by ACLU and clergy of different faiths over their decision to re-depict the cross in the county's seal.

The original 1957 seal had a Latin cross above the Hollywood Bowl, which was removed in 2004 due to a threat of a lawsuit by ACLU.

The county seal was then redesigned to include the San Gabriel Mission, but at the time that it was included, the physical San Gabriel Mission did not have a cross because it was removed for seismic retrofitting. It was thereafter restored to the mission building in 2009.

In 2014, Supervisors Don Knabe and Michael Antonovich, pointed out that adding the cross back on the San Gabriel Mission in the seal would be an accurate portrayal. The Board of Supervisors voted 3-2 on January 7, 2014, to put the cross back on the mission in the L.A. County seal, which they said reflected history and the architecture of the building more accurately. The department was then sued by clergy members of other religions and ACLU on February 6, 2014.

The seal was ruled unconstitutional by US District Court Judge Christina A. Snyder, who granted a permanent injunction against depicting the cross atop the San Gabriel Mission on the seal.

Snyder wrote a 55-page ruling stating that the seal "carries with it an aura of prestige, authority, and approval. By

(Photo: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The proposed seal with the cross on the left, and the current seal on the right.

singling out the cross for addition to the seal, the county necessarily lends its prestige and approval to a depiction of one faith's sectarian imagery."

Hector Villagra,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CLU of Southern California, and Linda M. Burrow of the Leslie & Proctor law firm, said they were "heartened" by the ruling.

"[The ruling] recognizes that Los Angeles is a diverse county comprised of adherents of hundreds of faiths as well as non-believers, all of whom are entitled to be treated with equal dignity by their government," they said in a statement.

Supervisors, Antonovich and Knabe, who initiated the reinstatement of the cross on the San Gabriel Mission in the seal, expressed disappointment regarding the ruling, which they said did not take note of "the historical accuracy of the Los Angeles County seal."

"The court failed to see that the Board corrected the inaccurate depiction of the San Gabriel Mission on the seal with an architecturally accurate version that featured a small cross - which of course the mission has," they said in a statement. "As any California fourth-grade student knows, the San Gabriel Mission is an important icon to the region and the birthplace of Los Angeles County."

The Pacific Justice Institute has urged the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to appeal the court's decision.

President of the Pacific Justice Institute, Brad Dacus, said, "The ACLU may not like our state and national history, but no lawsuit can change reality. The historic San Gabriel Mission is a crucial part of the history of Los Angeles, and it should be depicted on the county seal the same way it appears in real life."

PJI has offered the county its legal support in the form of filing a friend-of-the-court brief.

Christian in UK Not Allowed to Return to University for Homosexuality Comments

BY URANIA CHAE

A Christian student named Felix Ngole, who was expelled from the University of Sheffield for quoting the Bible on a Facebook post, has lost his appeal for reinstatement.

In September of 2015, Ngole posted on his personal Facebook page arguing against homosexual activity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the Bible. His post was supportive of Kim Davis, a county clerk who was jailed for refusing to issue marriage licenses to same-sex couples. He added in his post that a Bible verse from Leviticus calls homosexuality an "abomination".

At the time he posted the statements on Facebook, Felix Ngole, aged 38 and married with four children, was pursuing his Master's degree in social work at the university.

The university had claimed that that he had "transgressed boundaries which are not deemed appropriate for someone entering the Social Work profession."

Ngole's postings, although outside the workplace, were found to be upsetting to colleagues and "may have caused offense to some individuals" in voicing his opinion, according to a hearing by the university.

Christian Today reports that Ngole's appeal was lost because the Facebook post was found inappropriate and not in line with the conduct outlined in the Health and Care Professional Councils.

(Photo: Sheffields Students' Union) University of Sheffield, where Felix Ngole had attended before being expelled for his statements on Facebook.

The appeals office stated in a letter that Ngole had not "offered any insight or reflection" for his post, how his post may have affected others, and how it may have possibly affected his professional life.

"I am not against people who are in same-sex relationships, that is their choice, but I am a Christian and if asked for my views I should be free to express that," Ngole told the Telegraph.

Ngole is considering taking further action with the support of the Christian Legal Centre.

Andrea Williams, founder of the Christian Legal Centre, states that "Mr. Ngole has worked with those who identify as homosexual in the past and has always treated them with respect, never discriminating against them. There is no evidence that Felix's biblical views would have negatively impacted his work."

Williams believes that it is crucial to take further action because it is the first time a student has been stopped to further pursue a vocation before actually starting it, "simply for holding traditional Christians views on marriage and sexuality."

She claims that this event is sadly "yet another case of Christians being 'neutered' in the public arena."

Christian Village in Nigeria Attacked, Killing More than 500

Nigerian National Assembly proposes bill to contain Fulani herders who attacked the Christian villages

BY AMY KIM

Fulani herders raided more than 10 villages in northern Nigeria, killing at least 500 innocent civilians.

According to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the villages in Agate LGA are still in the hands of Muslim herders. After being driven out of five communities by security forces in Benue State, Muslim herders responded by attacking the people in their possession.

In addition to the attacks, representative Senator David Mark stated, "All the primary and post-primary schools, health centres, worship centres as well as the police station in the area have been burnt down."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gele Dikongue-Atangana, said she had "never seen such a level of destruction" in her 20 years of experience in the humanitarian relief field. She declared that the villagers will need a lot of assistance repairing the damage.

Currently, the attacks by herdsmen continue in areas of Benue State populated by the Tiv tribe.

The attackers are noted to have used a cellular device owned by an All Progressives Congress youth leader who was found dead on April 4.

Herdsmen extended their onslaught in the southern regions. Fulani herders kidnapped Father Aniako Celestine from St Joseph's Catholic Church Ukana in Enugu State on April 2, demanding a £35,000 payment in exchange for his release.

Currently, a bill made by the Nigerian National Assembly proposes that it would bring an end to the rampage caused by Fulani herders by enacting grazing reserves and stock routes across the country. But those who oppose the proposed bill say that it would not guarantee security, and instead bring more chaos.

"Addressing this violence must become a priority, with attacks being met by an effective defense of besieged communities, as well as of herders who are legitimate victims of cattle rustling. Murder, rape, and destruction of personal and federal property are criminal acts; consequently, perpetrators ought to be apprehended, disarmed and prosecuted in order to combat lawlessness and impunity," said Mervyn Thomas, chief executive of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a.org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종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젼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도합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로렌 커닝햄 YWAM 총재 · 데이빗 로스 안디옥커넥션 대표 · 폴 애쉴맨 CRU 부총재 · 론 스미스 YWAM SBS 성경학교 · 타드 존슨 고든컨웰 교수 · 존 왈러스 아주사대학교 총장 · 서삼정 아틀란제일장로교회 ·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 김남수 프라미스교회 · 장영춘 퀸즈장로교회 · 나광삼 큰무리교회

고석희 KWMC 사무총장 · 이승종 샌디에고예수마을교회 · 김혜택 뉴욕충신교회 · 배현찬 주예수교회 · 호성기 필라안디옥교회 · 정인수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 이동휘 바울선교회 대표 · 정운찬 전 국무총리 ·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 강승삼 KWMA 전회장 · 박기호 풀러신학교 교수

김양재 우리들교회 · 오정호 새로남교회 · 장상길 송도주사랑교회 · 마이클오 국제로잔운동 총재 · 이동열 GKYM 사무총장 · 송충석 KWMF대표회장 · 안성원 KWMF사무총장 · 한도수 KWMF공동회장 · 김종국 KWMF공동회장 · 박명하 KWMF공동회장 · 강대흥 태국선교사

강성일 브라질선교사 · 이극범 프랑스선교사 · 최광규 도미니카선교사 · 김영관 베트남선교사 · 김경일 KWMF사무차장 · 김정한 미주선교사 · 정석천 태국선교사 · 최용순 가나선교사 · 이금주 말레이시아선교사 · 김승호 일본선교사 · 장영호 러시아선교사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오정호 새로남교회 ·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 진재혁 지구촌교회 · 김양재 우리들교회 · 김동엽 목민교회 · 김문훈 포도원교회

스코트선키스트 풀러선교대학원장 · 고석희 KWMC 사무총장 · 한정국 KWMA 사무총장 · 최형근 서울신대 교수 · 김병윤 필리핀 선교사 · 강윤식 기쁨병원 원장

등록/문의 KWMF www.kwmf.info / kwmf2016@gmail.com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C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한어권/영어권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 $300	☐ $200	☐ $150	☐ $100	☐ $50
2차 5/15 마감	☐ $325	☐ $225	☐ $175	☐ $125	☐ $75
3차 6/5 마감	☐ $350	☐ $250	☐ $200	☐ $150	☐ $100
KWMC 대회숙박	☐ 기숙사 2인1실 $15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1인당 (4박5일)				동숙-무료 별도침대 ☐ $50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예외)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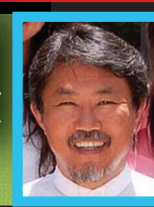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C2016!

KWMC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동 일한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개최됩니다.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이동열 선교사
GKYM 사무총장

GKYM FEST

어린이선교대회 · 청소년선교대회

3-12세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13-17세
고현진 전도사
고유진 전도사

일시	대회	대상
6/3(금)-6/6(월)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전세계 한인선교사
	MK(선교사자녀)대회	17새 이상 선교사자녀
	MK청소년선교대회	13-16새 선교사자녀
	MK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선교사자녀
6/6(월)-6/10(금)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8세 이상 한어권
	차세대영어권선교대회	18세 이상 영어권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청소년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어린이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KWMC2016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a Ave, Azusa, CA 91702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Association · WMK 선교사자녀대회 · CTS 기독교TV